World Cup 허형만 시인 특별기고

월드컵 에너지를 일상의 삶 속으로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태극전사들이 귀국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 리그 G조 마지막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져 비록 월드컵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역만리 그라운드를 누비며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까지 혼신을 다한 투혼을 보여주었다.

투혼, 세계인의 뇌리에 심어

정말 열심히 잘 싸웠다. 또한 온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지 교민들은 열 두 번째 선수로서 태극전사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몸놀림에 따라 웃으며 울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인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온 국민이 잠을 잊은채 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목 놓아 외치던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는 뜨거운 민족정신 만큼은 지난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단연 우승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렇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난세일 때에도 혼연일체가 되는 국민성을 보여주곤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토록 작열했던 유월의 열기, 월드컵의 에너지를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 에너지를 일상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자.

월드컵 경기에서 졌다고 기죽지 말고 가라앉지 말자. 월드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던 대한민국의 '하나 되는 힘'을 우리네 일상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자.

만해 한용운 시인은 그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고 노래한다. 또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고 예언한다.

그렇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어떠한 이유로 졌든지 간에 태극전사들은 잘 싸웠고,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 되는 힘을 보여준 만큼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은 생각지도 말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상의 삶 속으로 이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붓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다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기름으로 저장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떠한 큰일을 겪고 나서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태극전사들은 태극전사들대로 격전지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모든 아픔을 잊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 푸욱 쉬었다가 다시 때 되면 와신상담 아직 '끝나지 않은 신화'를 완성시키는 차후를 도모해주길 바란다.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신화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월드컵으로 인한 흥분과 슬픔까지 모두 평상심의 한가운데에서 용해시켜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만듦으로써 월드컵 기간 중 보여준 국민의 하나된 힘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계기로 삼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허형만

〈시인·목포대 국문학과 교수〉

▲ 1945년 순천 출생
▲ 1973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 시집 '첫차' '영혼의 눈' '진달래 산천' 등 11권과 평론집
▲ 현대문학이론학회장,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장성아카데미 특강

"현정부 당장 인기 없어도 민생 해결 원칙 지킬 것"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고향인 장성군에서 주최한 장성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록을 25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했다.

이 실장은 권력기관의 정상화, 당정분리 등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 탈피,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정치문화 구현,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참여정부의 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나면 '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인기가 없느냐' '지방선거 때 왜 여당이 참패했냐'는 질문을 듣는다"며 비우호적인 여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인기가 왜 없느냐"고 자문한 뒤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자답한 이 실장은 "국민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경제는 잘하고 있는데 민생은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고, 불만이 많다"며 '경제'와 '민생'의 구분을 통해 참여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주요 업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는 등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민생'이 고달픈 이유를 "97년 IMF 환란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당장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전 '후끈'

김종철-박인환 2파전 양상…'편가르기' 횡행 후유증 우려

오는 7월 7일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여론을 타진해왔던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득표활동에 나서면서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유력 후보들은 인맥과 조직을 총동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매개로 세규합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편가르기나 '내사람'심기도 횡행,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돼온 도의장 입지자는 5명. 원내 최다선(5선)인 김종철(여수1) 의원과 4선인 강우원(영암1)·이일형(고흥1) 의원, 재선의 박인환(구례2)·김재무(광양2) 의원 등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이들 중 김종철 의원과 박인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그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일부는 부의장직을 약속받거나 후반기를 염두에 두고 '일보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철 의원은 광주·전남 유일의 5선 광역의원으로서 그간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폭넓은 경험을 내세우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지난 1991년 이후 제4~7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합리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가 앞장서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다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민주당 일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만큼 야당 역할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의원〉 〈박인환 의원〉

제7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환 의원은 재선그룹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올곧은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가 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나 당에 대해 할 말은 하고 향후 정계개편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 '과격하다'는 평도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자신에게 덧칠해진 '강성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주부터 도의원들과 접촉을 늘려가며 세력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에서는 29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 표심의 향방이 최대 관건이다. 전체 의원(51명)의 절반이 넘는 이들의 지지 여부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교황선출식'의 현행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의 기회가 없어 밀실야합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서울·부산·광주 등 타 시·도의회 처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화갑 대표 '5·31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워크숍' 특강

민주당은 2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에서 당 소속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당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헌 통해 권력구조 바꿔야"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경우) 현행 단임제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워크숍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 "대통령제 하의 지난 DJP(김대중 + 김종필) 연합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결국 분열됐다"며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이 되면 연정을 만들었을 때 다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각제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책임 정치를 통해 국민화합과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사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는 한 대표를 비롯, 광주·전남 당선자들 200여명이 참석해 5·31 지방선거 이후의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